

제8대 광주시의회 ‘빵점’ 시의원 ‘수두룩’

올해로 출범 4년째로 접어든 제8대 광주시의회 의정 활동 성적표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의정 활동의 지표로 불리는 조례 발의·5분 자유 발언·시정 질문 등 건수가 손에 꼽히는 시의원이 있는 반면, 매달 평균 1건 이상 발의 등을 한 의원도 많았다.

28일 광주매일신문이 광주시의회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각 시의원별로 조례 발의 건수 등을 확인한 결과, 제8대 임기 마감 9개월 가량을 앞둔 시의회 성적표는 ▲조례 발의 405건 ▲시정 질문 57건 ▲5분 발언 102건 등이었다.

현재 의안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시의원 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승계자인 최미정 시의원을 포함, 모두 24명이다. 시의원 한 명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16.88건이었으며,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은 각각 2.38건과 4.25건이었다.

조례 발의는 대표 발의한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의원은 수가 50%인 12명에 달했다. 임기 동안 5건 미만인 시의원도 2명이나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시의원도 전체의 16.67%인 4명에 달한 것으로

출범 4년…‘의정 활동 성적표’ 극과 극

조례 발의 건수, 전체 24명 중 12명 평균에 못 미쳐
시정 질문 0회 4명, 5분 발언 2건 이하도 8명 달해
박미정, 조례 발의 36건 최다…임미란·장재성 順

파악됐다. 5분 발언 건수가 2건 이하인 시의원은 8명(33.33%)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박미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 제2선거구)은 전체 의원 중 조례 발의

건수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미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제3선거구) 28건 ▲장재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제1선거구) 27건 ▲김용집 시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 제1선거구) 24건 ▲최영환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24건 등의 순이었다.

5분 발언에선 김학실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제3선거구)이 10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 질문은 김광란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 제4선거구)이 6차례 발언에 나서 이 부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김용집·황현택 시의원은 후반기 의정 등 활동을 하면서도 ‘5분 발언’(3차례)과 ‘시정 질문’(3차례) 등 고른 의정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조례안 발의나 5분 자유 발

언 건수만으로 시의원의 의정 활동 점수를 매기는 것은 다소 과한 면도 있지만 시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는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하는 시의회’가 되려면 ‘조례 발의’ 등을 많이 하는 시의회’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조례는 아무래도 지역 민원과 연관된 것들이 많지 않느냐”라면서 “올해 시의회 개원 30년사에 ‘조례 20선’ 선정한 뒤 포함시켰는데, 이는 시의원 자신들도 조례 발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응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광주시-한전 ‘에너지파크’ 개관 에너지 신기술 전시·체험·교육 공간인 ‘에너지파크’ 개관식이 28일 오후 서구 상무시민공원 내 전시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등 내빈들이 체험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와 한국전력이 협력해 문을 연 에너지파크는 전기의 가치 및 에너지산업을 제시하는 에너지들을 4개의 공간으로 구성했다. /김애리 기자

추석 연휴 후폭풍…‘잡히지 않는 코로나19’

광주, 연일 두 자릿수 기록…9월 확진자 중 40% 외국인
방역당국 “델타 변이 기승…타지역 방문자 진단검사”

광주·전남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외국인 집단 감염과 타 지역 접촉자 감염이 잡히지 않으면서 광주와 전남에선 추석 연휴 직후부터 연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날까지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11명 중 327명(40.3%)이 외국인이었다. 확진자 10명 중 4명은 외국인이라는 얘기다.

지난달 확진자 677명 중 외국인이 전체의 18.2%인 123명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확진자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신규 확진자 22명 가운데 6명이 외국인이었다.

나머지는 기존 확진자 관련 7명, 감염 경로를 조사중인 유증상자 9명이다. 현재 광산구 외국인 집단 감염 확진자는

종교시설, 제조업체, 물류센터 등 모두 341명으로 늘었다.

일상 감염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확진자 중 2명이 중학생으로 확인. 각 학교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한 뒤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또 동구의 한 대학병원 간병인 1명과 일가족 감염자 중 1명이 광산구 모 요양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이 해당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다.

해외 변이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확진자도 501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는 466명(93%), 영국발 알파 바이러스는 35명이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해외 변이 감염자 87명 중 86명은 델타 변이로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이날 15명의 확진자가 발생

했다. 지역별로는 순천 3명, 나주·목포·여수·광양·완도 각 2명, 담양·신안 각 1명씩이다.

이중 담양 확진자는 취약시설 선제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주·여수·광양·완도 확진자 6명은 유증상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안과 순천 확진자는 기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다.

앞서 전남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추석 연휴인 지난 21일 23명을 시작으로 ▲22일 15명 ▲23일 17명 ▲24일 28명, 25일 25명 ▲26일 16명 ▲27일 18명 등으로 매일 스무 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검사를 꼭 받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접촉자로 분류되면 동거가족 모두가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오승지·임후성기자

광주 R&D 예산 5년 연속 전국 ‘꼴찌’ 수준

수도권, 대전·충청 집중…조오섭 “지방, 사업 선정 인센티브 필요”

국토교통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이 수도권과 대전·충청권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연구개발 R&D사업비는 2017년(3

천984억원), 2018년(4천401억원), 2019년(4천517억원), 2020년(5천12억원), 2021년(5천890억원) 등 총2조3천80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5천445억·22.9%), 경기(8천584억·36.1%), 인천(978억·4.1%) 등 수도권에만 5년간 총1조5천7억원(63

%)이 지원됐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3천321억·14%), 충북(584억·2.5%), 충남(436억·1.8%) 등 대전·충청권은 4천341억 원(18.3%)이 지원됐다.

반면 광주(209억·0.9%), 전남(332억·1.4%), 전북(253억·1.1%) 등 호남권은 794억원(3.3%)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1/19, 대전·충청권에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광주는 2017년(28억·0.7%), 2018

년(35억·0.8%), 2019년(46억·1%), 2020년(44억·0.9%), 2021년(56억·1%)으로 5년 연속 제주·울산에 이어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구개발 투자 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지에도 실패했던 아픈 경향이 있다”며 “R&D 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고 수도권과 경쟁 가능한 규

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 R&D 예산 지원과 사업선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Today

쿠광, 광주에 첨단물류센터 착공 5면

장갑수와함께 걷는길-선비의길 14면

최경주,주최자·선수 ‘1인 2역’ 16면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교차로 우회전 시 서행 및 주의운전은 필수!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곳입니다.



최근 2년간(2018~2019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

구분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
사업용	2,133	71	3.3
비사업용	6,826	70	1.0
합계	8,959	141	1.6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우회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1.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1.5명)보다 높음

특히 사업용자동차의 치사율은 평균보다 2.1배(3.3명) 높음

* 치사율 :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